

# 정보통신 부문

김상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영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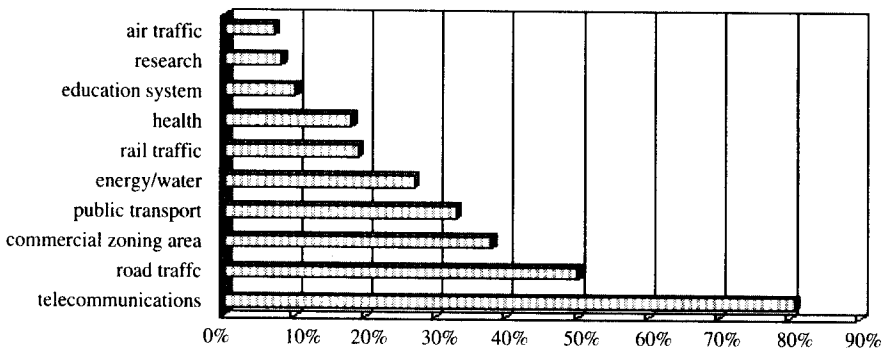
##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

**정** 보통신 부문은 국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하부 구조로서 신경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 협력은 경제·사회·문화의 전 부문에 걸친 남북한 교류 협력 및 경협 활성화의 진전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3通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교류 협력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남북한 교류 협력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 협력은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온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

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처럼 통신이 남북한 교류 협력 및 경협 활성화에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신 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 협력은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인식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한간의 경협 확대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 협력은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정보통신 부문의 충분한 교류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남

〈그림〉 독일 통일후 사회간접자본 개선에 대한 요구



자료: Deutsche Telekom.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민간에 의한(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험은 아직까지 주로 임가공(또는 위탁 가공)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향후 단순 교역 및 위탁 가공 교역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러한 교역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 점차 합작 및 투자의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교류 협력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통일 후 다른 어떠한 사회간접자본보다도 통신 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일전 통신 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 협력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 협력 방안을 사업적 접근 방안, 학술적 접근 방안, 사회·문화적 접근 방안, 지리적 접근 방안, 국제 기구를 통한 접근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한다.

## 교류 협력 추진 방안

### 사업적 접근 방안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민간에 의한(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험은 아직까지 주로 임가공(또는 위탁 가공)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향후 단순 교역 및 위탁 가공 교역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러한 교역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 점차 합작 및 투자의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위탁

북한에서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은 국가과학원 프로그램종합연구실, 평양프로센터, 조선컴퓨터센터,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자본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 개발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이들 기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적 접근 방안의 하나로 북한이 소프트웨어 제작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현지의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교류 협력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사업은 북한에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 분야로는 북한과의 교역 관련 업무 전산 프로그램, 현지 기업의 운영 관련 전산

프로그램, 관광 및 문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이산 가족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적 접근 방안으로서 첫째, 북한이 소프트웨어 제작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현지의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교류 협력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특산물 및 관광 상품 판매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공중전화 기기의 지원 및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한 북한 특산물 및 관광 상품의 판매

북한의 상품을 남한 내에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 상품을 전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북한의 특산물 및 관광 상품의 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특산물이 여러 수입 업자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나, 홍보 매체가 부족하여 제품 판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의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존재하고 있으나, 몇개의 제품들이 여러 곳의 인터넷 쇼핑몰에 산재되어 있고 북한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특산품 또는 완제품·관광 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게 되면, 북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부수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생산품과 함

께 남한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포털사이트(portal site)로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공중 전화 기기의 지원 및 설치

북한에서의 통신은 공공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통신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당 간부 등 지도층에만 개인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협동농장·공장 등에 설치된 공중 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통신 수단으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 전화의 보급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 1> 남북한 공중 전화 수 비교(1996년 현재)

항목	단위	북한(A)	한국(B)	비교(B/A)
시설 수	대	2,720	339,240	125 배
1,000인당 시설 수	대	0.12	7.45	62 배

자료: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1998.

끝으로 인력 교류 및 지원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원칙적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보다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인력 교류 및 지원 사업은 학계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UNDP, APT, ITU 등 국제 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성사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통신 부문의 교류는 북한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군사 및 행정 조직 측면이 아닌 일반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중 전화기의 보급 지원은 공중 전화기 이용자의 다수가 북한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신 부문의 대북 지원 방안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북한에서 소요되는 공중 전화기를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과 합작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되,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방안과 이산 가족 사업과 연계하여 남한의 구형 전화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 인력 교류 및 지원 사업

인력 교류 및 지원 사업은 명확하게 이로 인한 경제적 실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경제 협력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결국 모든 문제가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기술 인력 교류 사업이 향후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 및 통일에 대한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부문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이 원칙적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보다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인력 교류 및 지원 사업은 학계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UNDP,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 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성사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의 경우, 북한 현지보다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북한측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학술적 접근 방안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의 교류없이 반세기가 흘러감에 따라 사상은 물론 언어와 문화에까지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우리글의 컴퓨터 처리에 필요한 부호계, 자판, 용어 등이 달라서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글 컴퓨터 처리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매년 중국 연변에서 남북한 및 중국 등 외국 동포 학자들이 모여 개최하는 'Korean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는 학술 교류의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컴퓨터 용어의 공동 번역 출판, 공동 자판

학술적 접근 방안으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기술의 표준화를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경우에는 분교 및 합작 대학의 설립,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의 교환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의 검토 시안 채택, 통신 부호계용 자모 배열 순의 합의, 통신 교류용 단일 부호계(코드) 등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sup>1)</sup>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기술의 표준화를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경우에는 분교 및 합작 대학의 설립,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의 교환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접근 방안

- 국제적인 스포츠·문화 행사의 공동 유치 및 통신 부문의 지원

국제적인 스포츠·문화 행사의 공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스포츠·문화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신 부문의 지원을 통해 통신 인력의

교류 및 통신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동질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제고, 통신 인력 및 기술의 지원을 통한 통신 분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의 남북한 공동 개최가 성사될 경우 행사 준비 및 지원을 위한 통신 부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터넷을 통한 이산 가족의 교류

북한은 인터넷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자유 사조 침투의 통로라 보고 일반 주민들의 접근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국가 기호를 kp<sup>2)</sup>로 공식 등록했음에도 현재까지 이 기호를 이용해 등록된 주소가 없다. 다만, 해외 친북 단체들을 통해 20여 개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김정일과 북한체제 선전 및 대남 심리전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산 가족의 교류를 위해 인터넷망을 제한적으로 구축할 경우, 북한 내에서 통

1) 박찬모(1997. 6), 「북한의 정보화 동향 분석」, 한국전산원.  
2) 남한은 kr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접근 방안으로서는 첫째, 국제적인 스포츠·문화 행사의 공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스포츠·문화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신 부문의 지원을 통해 통신 인력의 교류 및 통신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이산 가족의 교류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즉, 남북한 당국간의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남한의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는 작업을 남한의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한 정부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에서는 1998년 9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이산 가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상 이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 가족에 대한 정보와 연동되지 않고는 큰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간의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남한의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는 작업을 남한의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 남북한 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을 통해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먼저 북한의 이산 가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남한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시키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남한에서 부담하고 필요하면 남

한의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이산 가족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인터넷을 통한 교류는 해당 부처의 도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리적 접근 방안

이제까지의 남북한 교류 협력을 분석해볼 때 북한은 대내적 권력 관계의 변화와 위험을 수반하는 체제 개혁보다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등과 같이 부분 개방을 통해 자원을 축적하고 경제 회생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방안은 지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남북한간의 경협이 점차 확대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이러한 지역적 제한은 완화되어 점차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로 경협 사업 지역 대상이 확대되어갈 것이다.

####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현재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유일한 개방 지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는 남북한 경협 사업을 위한 현실적 대안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참여없이 나진·선봉지역이 개발될 수 없다는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남한이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투자 유발 효과는 향후

남북 경협의 활성화 및 북한의 외자 유치 확대 측면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진·선봉지역은 UNDP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과 연계하여 북한 당국이 이 지역을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12월 현재 나진·선봉지구의 창설 승인 기업 수는 외국인 투자 기업 86 개, 국내 투자 기업 35 개 등 총 121 개의 기업이 있다.<sup>3)</sup>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투자 기업의 경우, 남한 본사와의 통신은 평양에 있는 위성통신국을 경유하여 제3국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되면 통신 부문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남북한간의 교역 및 경협 사업 지원을

지리적 접근 방안으로서는 첫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통신 설비 및 전용회선망의 구축 참여이다. 기술적으로도 나진·선봉지역~청진~평양~판문점~서울을 잇는 남북한간 전용회선의 구성은 기존에 이미 설치된 설비를 이용해서 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서의 통신 지원 확대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한간 통신망의 직접 연결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 남북한간직통전화망을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금강산 일대에 이동통신망을 구성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위한 전용회선통신망의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진·선봉지역의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나진·선봉지역의 통신 설비 구축에의 참여 및 전용회선망 구축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나진·선봉지역~청진~평양~판문점~서울을 잇는 남북한간 전용회선의 구성은 기존에 이미 설치된 설비를 이용해서 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서의 통신 지원 확대

현재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3) 통일부(1998),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실무 안내」.

국제 기구를 통한 접근 방안은 현재의 경직적인 남북 관계를 고려해볼 때 직접적인 대북 지원보다는 APT, ITU, UNDP 등의 국제 기구를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통신 장비의 선점 효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위한 통신 회선은 일본의 IDC社를 경유하여 총 6 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한 간 통신망의 직접 연결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사업이 확장되면 남북한간직통전화망을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금강산 일대에 이동통신망을 구성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동 전화를 이용한 직통전화망은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금강산 일대에 이동통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설악산과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 국제 기구를 통한 접근 방안

1997년 5월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 협의체) 고위급회의에서 북한 체신부가 APT에 대학 연구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신 장비와 측정 장비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현재의 경직적인 남북 관계를 고려해볼 때 직접적인 대북 지원보다는

APT, ITU, UNDP 등의 국제 기구를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통신 장비의 선점 효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무상으로 지

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 기구에 모두 가입해 있다. 특히, 두만강개발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UNDP로부터의 통신망 구축 및 통신 인력의 교육과 같은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단계별 접근(step-wise approach)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교류 협력은 위에서 언급된 접근 방법들의 다양한 조합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즉, 금강산 지역 이동 전화 사업의 경우 지역적 접근과 사업적 접근 방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만강 개발 구역의 통신 사업은 지역적 접근과 국제 기구(UNDP)를 통한 접근, 사업적 접근 방법의 조합으로 이해된다.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경험은 여타의 부문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일 이전까지의 시기를 편의상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제1단

4) 「매일경제신문」(1997. 5.10).



계는 현재의 남북한간의 관계가 큰 변화없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제2단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직거래를 비롯한 인도적·학술적·문화

적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제3단계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남북한 당사자가 협력을 위해 서로 의논하고 그 결과를 시행에 옮길 태세를 갖춘 시기를 의미한다.

**맺음말**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서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 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 부문은 국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하부 구조로서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경험은 여타의 부문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현재의 남북한간의 관계가 큰 변화없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제2단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직거래를 비롯한 인도적·학술적·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제3단계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남북한 당사자가 협력을 위해 서로 의논하고 그 결과를 시행에 옮길 태세를 갖춘 시기를 의미한다.

있으며, 정보통신 부문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한 교류의 본격적인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 협력은 여타 부문의 교류를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북한이 이제까지 취해왔던 태도를 감안할 때 여타 부문보다 앞서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부문의 경험은 다른 부문의 교류 협력과 보조를 맞추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표 2〉 단계별 접근(Step-wise Approach)**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적 접근	나진·선봉 금강산 개발	평양, 남포, 서해안 공단 등	주요 도시
사업적 접근	입자공, 합영, 합작	합영, 합작, 단독투자	합영, 합작, 단독 투자
학술적 접근	자관의 통일 분교의 설립 등	합작 대학 설립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교환	통일 이후의 정보통신 정책
사회·문화적 접근	2002년 월드컵 등 체육 행사, 이산 가족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국제 기구를 통한 접근	초기에는 ITU·APT·UNDP 등을 통한 간접 지원에 비중을 두고, 향후 남북한 관계의 호전시에는 점차 직접 지원으로 전환		